

1202(금) 빌립보서 1-4장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빌립보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던 지역으로서
소유권/세금/행정/법/지위에 있어 본토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의 종교 활동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민원/구호를 당국에 요청하는 통로였으므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 동참해야 할 시민의 책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활동에 불참했습니다.
주민들은 성도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politeuma 3:20).
<시민으로서(politeuesthe)>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1:27).

고대 사람들은 <세계 시민의 덕>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공동의 관심, 같은 의견/행동, 공동의 결정, 한 마음(civic unity).
천국 시민의 덕목과 세상 시민의 덕목은 별개가 아닙니다(1:27).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1-11, 14-16, 4:2-4/ 2:5-11/3:2-21/2:19-30, 3:17)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2:2-4)”

하나님 나라 시민의 덕은 세상에도 덕스러운 것이며(3:8),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도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2:3, 4:2).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 모두를 위한 영광스런 일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2:14-15)”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 ❶ 참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에도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 ❷ 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남을 돌보고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빌립보서 1-4장

업로드 자료 ❶ <BIBLE PROJECT 성경개관> [빌립보서 개요 Philipians - YouTube](#)